

김은주 개인전: 『The Sun to The Moon』 25. 11. 29. – 26. 2. 8.

The Sun to The Moon

태양과 달, 그리고 그 사이를 도는 지구. 모든 빛의 시작과 끝은 이 세 개의 궤도 안에서 순환한다. 이번 전시 『The Sun to The Moon』은 빛의 흐름과 시간의 공전, 그리고 존재들의 연결성에 대한 사유에서 출발한다. 김은주 작가는 태양으로부터 시작된 빛이 달을 비추고, 다시 인간의 눈으로 스며드는 과정 속에서 빛이 '공간을 잇는 매개'이자 '시간을 새기는 언어'임을 탐구한다. 작가에게 빛은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감각과 인식의 리듬이며, 이 전시는 그 리듬을 따라 '공전하는 시간'을 시각화한 시적 시도이다.

김은주의 회화는 이전의 『푸른 수평』에서 보여준 고요한 수평의 정서를 넘어서, 이번 전시에서는 보다 확장된 빛의 순환과 감각의 회로를 구축한다. 작가는 물리적 빛의 반사와 파동을 회화적 언어로 번역하며, 화면 위에서 색의 시간성을 탐구한다. 'Flow', 'Romance', 'Glow', 'Breath', 'Serenity' 등 이번 신작들은 각기 다른 시간의 온도와 감정의 결을 담은 빛의 순간들이다. 그녀의 붓끝에서 스며든 빛은 공전의 궤도를 따라 돌고, 사라지고, 다시 돌아오며, 그 반복 속에서 관객은 자신만의 내면적 순환을 감각하게 된다.

김은주의 회화는 1960년대 미국 서부에서 전개된 'Light and Space' 운동의 미학적 전통과 연결된다. James Turrell, Robert Irwin, Dan Flavin 등으로 대표되는 이 사조는 빛과 공간, 관람자의 지각을 예술의 핵심으로 삼으며, 물질보다 경험과 감각의 구조를 중시했다. 김은주는 이러한 빛의 조형적 접근을 회화적 차원에서 재해석한다. Olafur Eliasson이 빛과 공기, 물을 통해 감각의 확장을 시도한 것처럼, 그녀는 색과 시간, 공간의 층위를 통해 '보이는 세계 너머의 지각'을 제안한다. 또한 Maurice Merleau-Ponty의 현상학적 지각이론처럼, 김은주에게 회화는 감각이 사유로 전환되는 장(場)이다. 빛은 단순히 비추는 것이 아니라 '보게 하는 조건'이며, 그 조건을 통해 작가는 관람자에게 내면의 리듬과 세계의 호흡을 감각하게 한다.

『The Sun to The Moon』은 결국, 나와 세계를 연결하는 빛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다. 태양에서 달로, 다시 인간에게로 이어지는 빛의 흐름은 모든 존재가 하나의 호흡으로 이어져 있음을 암시한다. 김은주 작가는 이 순환의 리듬을 통해 '공전'의 시간을 시각화하고, 그 속에서 관객이 스스로의 내면적 빛과 마주할 수 있도록 초대한다. 이 전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물질과 비물질', '나와 타자'를 잇는 감각적 다리이며, 그 위에서 우리는 서로를 비추는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

김은주의 『The Sun to The Moon』은 '공전(orbit)'과 '빛의 순환(cycle of light)', '연결성(connectivity)'을 축으로, 현대 회화가 어떻게 감각과 시간, 존재를 매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적 탐구다. 그녀의 회화는 Light and Space 운동 이후의 회화적 확장을 보여주며, 빛의 현상학적 경험을 시각적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이다. 그녀의 작품 속 빛은 고정된 형태가 아닌, 관객의 시선과 움직임에 따라 변하는 유동적 존재로, 이 변화를 통해 작가는 '인식의 회화'를 구축한다. 이는 감각이 사유로, 시각이 시간으로, 경험이 기억으로 순환하는 미학적 과정이며, 그 궤도 속에서 우리는 세계와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